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2
하나님의 영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2: 하나님의 영

2.1 하나님의 영: 그 정의

2.2 영감(靈感)

2.3 성령의 은사들

2.4 그 은사의 철수

2.5 성서의 권위

변론 4: 성령은 인격체인가?

변론 5: 의인법 (擬人法)의 원칙

변론 6: 칼뱅주의(Calvinism)

변론 7: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라” (행.2:38)

변론 8: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나”(막.16:17)

2.1 하나님의 영: 그 정의

하나님은 정서가 있고 생각하시는 실제의 인격적이신 분이시므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을 함께 하고, 또한 우리 생활에서 그의 성품과 일치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 실제적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영”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정의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었는 데, “그곳은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다는 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There was a really good spirit there”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그 단어 “좋은 영(good spirit)”은 그 결혼식장에 모인 축하객들, 환대하는 좋은 음식들, 모두가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낱말도 모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영”이라는 그 히브리 낱말은 “호흡” 또는 “힘”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의 “호흡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요소이며, 그의 마음의 반영인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이라는 낱말이 사람의 어떤 마음 또는 그의 기질(氣質)로 사용된 실례들을 학습 4.3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롬.15:13)라는 것에서, 영은 단지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성서는 사람의 생각이 그의 행동에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다(잠.23:7; 마.12:34).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우리의 ‘영’ 또는 “마음”은 우리가 지장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실을 상기하고, 부엌에 놓아둔 바나나를 생각하고 그곳에 드러가게 된다. 그 ‘영’의 소원을 행동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손을 내밀어 그 바나나를 꺼내어 껍질을 벗겨 먹게 된다. 사람의 호흡이던가 또는 마음, 힘을 의미하고 있는 바, 그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단순한 실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소인 우리 영은 우리 생각이며, 또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행동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생각이나 기질이 나타난 것이다. 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존재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기질과 목적이 나타난 힘이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신다. “만군의 야웨께서 맹서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라”(사.14:24)고 하셨다.

하나님의 힘

성서의 많은 구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靈)은 그의 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우주 창조(宇宙創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2 하나님의 영

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창.1:2,3)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든가, 궁창 등등 모든 것을 만든 힘이였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의 손으로 꼬부라진 뱀을 만드셨느니라”(욥.26:13). “야웨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萬象)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느니라”(시.33:6).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다음 같이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모든 것은 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나며(요.1:13),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요.3:3-5). 그의 영의 작용으로 그의 뜻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지 창조에 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였나이다”(시.104:30)라고 하였다. 이 영, 곧 그의 힘은 또한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유지하며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극적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으므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지쳐 피곤해졌던 욥은 이것에 관해 깨달은 선지자였다. “그가 - 하나님이 만일 그 자신에게 그의 영과 그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는 일체로 멸망할 것이요,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것이라”(욥.34:14-15). 다윗은 의기 소침해졌을 때에, 이 영으로 계속 그를 지탱 해주시며, 그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시.51:12).

우리가 받은 영과 모든 피조물이 유지되게 하는 영에 관하여는 학습 4.3에서 공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출생시에 주신바(시.104:30; 창.2:7), 그 “생명인 영의 호흡이 있다”(창.7:22). 이것으로 “모든 육체의 생명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라”(민.27:16; 히.12:9과 비교)고 그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을 양육하시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영은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다윗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영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그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가 비록 하늘 처소에 인격적으로 거처하시지만, 어디든지 그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 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웨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 3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2-10).

.이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의 뇌에서 하나의 블랙 박스가 되어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실제적 나타나심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관한 개념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의 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계속하여 그의 행동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139: 6))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그와 같은 지식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을 깨달았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신분을 살펴봄으로서, 특별히 침례를 받으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야웨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렘.23:24) .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터득해야 할 광범위한 개념(概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며 기질(氣質)이며, 그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능력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爲人)도 그러 하느니라”(잠.23:7).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생각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비인격적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광대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령”이란 낱말은 신약성서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 우리말 개역 성경의 “성신(聖神)”이라고 번역된 곳은 마땅히 성령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구절들에 있는바,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도 행전 2장에 있는 구절에서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것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설명하였다. 거기에는 “나의 영의”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묘사되어 있다(행.2:17). 또한 누가 복음에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눅.4:1)고 기록하였다. 나중에 예수는 그것은 이사야서 61장의 예언 성취라고 말하였다. “주 야웨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야웨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경우와 기타 여러 경우에서, 성령은 구약성서의 낱말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것이다.

4 하나님의 영

다음 구절들을 읽고 성령이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낱말임을 유의하라:-

- “성령이 네게(마리아)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눅.1:35).
-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15:13,18).
-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살전.1:5).
-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야속은’ 성령이었다(눅.24:49).
- 예수 자신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던 것이다”(행.10:38).
-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뒷받침을 받을 수 있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고, 다만 영과 능력의 나타남이었다”(고전.2:4)고 하였다.

2.2 영감 (靈感)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힘, 그의 생각, 또는 그의 성품, 등등으로 정의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영의 시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전 학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에 역사한 것을 언급하였다.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느니라” (욥.26:13). 그 천지 창조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였다(창.1:2)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예시와 “주의 말씀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시.33:6)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다. 그러므로 우리 말들이 우리의 생각들과 소원들을 바로 정확하게 “우리들”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의 마음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지적하셨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12:34).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통제하려면, 먼저 우리 생각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또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영감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용어는 항상 그 낱말 “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영의 행동(in-spirit-action)

“영은” 호흡을 의미하며, “영감” 또는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말씀의 경이로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터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성서와 친숙하라고 디모데를 권면하였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서를 알았나니, 성서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5-17).

영감으로 된 성서가 그와 같은 모든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칠 또 다른 어떤 ‘영의 빛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지식의 원천이 그들의 개인 감정과 경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온전한 구비(具備)라면, 그들의 생활에 또 다른 분의 능력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임으로 그것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가졌었지만, 믿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우리는 히브리인서 4장에 있는 회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니라”(히.4:2).

많은 사람이 우리가 받은바 하나님의 영, 또는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에 진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 지름길을 택하여 쉽게 나아가려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생기는 우리 생활의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영향을 주게 하기 보다는, 일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어떤 의(義)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아주 그릇된 생각 때문에 생긴 것이다.

6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그런 의식은, 모든 성서가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증거이다. 그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를 단지 옛 성인들의 지혜로운 의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야만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서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1:19-21).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그의 뜻인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아델피안들은 그 신앙을 다른 어떤 신학이나 인간 철학도 배제하고, 오직 성서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마지 아니한다.

성서 필기자들(The Writers)

우리는 성서의 완전 영감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중요하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을 영감했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으로 이끌리었으므로, 그들의 말들은 그들 자신의 말들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진리이며(요.17:17),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딤후.3:16-17), 세상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읽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많은 학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가 받은 말씀들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고로,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성령에 이끌림을 따라야 했던” 것이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내가 다시는 야웨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20:7-9).

또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말았다(민.24:1-13; 신.23:5을 비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의 뜻을 말했던 많은 사람이 마지못해 했던 것을 성서에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나열된 인물들은 그것에 관하여 몸부림쳤던 매우 인상적인 자들이다:-

성서 기본 지식

www.korbible.net

하나님의 영 7

모세 (출.4:10)

에스겔 (겔.3:14)

요나 (욥.1:2-3)

바울 (행.18:9)

디모데 (딤후.4: 6-14)

발람 (민.22장-24장)

이것은 모두 베드로후서에서 가르친 말씀을 확인한 것으로(벧후.1:19-21),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것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준 결과로 된 것을 논증하고 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겠느냐. 주 야웨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게겠느냐”(암.3:8).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너무 강하게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자신을 잊어버렸었다. “야웨가 모세에게 말한 모든 명령들”(민.15:22,23) - 이 명령들은 실제로는 모세가 말한 것이었다(민.15:17).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성서의 필기자가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봉사해야 했던 우리를 위하여 계시한 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상고하였다”(벧전.1:9-12)고 하였다. 그들이 실제로 기록한 말씀들은 그들이 상고해보았을 때에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것은 그 실례들이다. 다니엘(단.12:8-10), 스가랴(슥.4:4-13), 베드로(행.10:17).

만일 성서의 일부만 영감으로 씌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의 영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록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시.119:140).

이처럼 성서라는 책은 어떤 인간의 문학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씌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상고하여 해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 성서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고 하였다(마.2:5).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셨으니”(행.1:16).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다(히.3:7과 비교).

8 하나님의 영

-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행.28:25). 이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저주한 말씀이다. 그것을 이사야의 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것이라”고 말하였다(눅.3:4 참고하라).

그러므로 성서 저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을 가리키는 구절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 학습을 결론지으려고 한다.

-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했던 것이다(요.17:8; 14:10).
- 사람은 하나님의 영(요.3:3-5)과 하나님의 말씀(벧전.1:23)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만군의 야웨께서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이라”(슥.7:12)고 하였다.
-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잠.1:23).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의 영의 작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서를 읽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은 여러 구절에서 같은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야웨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59:21).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삼하.7:21), 내 영을 너희 속(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36:27),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렘.31:33).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과 성품으로 언급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 힘으로도 되어있다. 그것은 그의 영 - 말씀이 그의 마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는 아주 큰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을 참으로 인식하는 자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는데 생기는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극복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 누가 복음서에도 같은 말을 말하고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7).

그러므로 성서를 연구하며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정력적인 발전이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냉냉하고 아카데미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소위 교회들처럼, 몇 구절만 간단히 인용하므로써 그 의미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생활에 적용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느니라”(히.1:3; 4:12).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신자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신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 마음을 나타낼 것인바, 그리스도 재림시에 당신을 하나님의 영적 본성(Nature)으로 변화시킬 것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벧후.1:4). 바울의 전도는 “그 영과 그 능력의 역사를 확증하는 것이었다”(고전.2:4).

세상에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지마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실제 인격적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성서의 전체적 영감설을 부인하고, 우리 개인의 생각과 확신을 능가하는 성서의 힘을 부인하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들은 “경건(敬虔)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복음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딤후.3:5)고 하였다.

10 하나님의 영

성서의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다. “너희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와 같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전도단도 조롱을 받았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서를 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열성을 가지고 읽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성서의 기록을 주의 깊이 읽었다면, 성서 저자들이 영감받았던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영감으로 씌어진 다른 성서도 상고하였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방면에는 주 예수께서 탁월하셨다. 예수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인용하실 때에, 그는 다윗의 말들이 영감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영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칭하였으니”(마.22:43)라고 서두를 말하였다. 또한 예수는 모세의 “글”(요.5:45-47)에 라고, 그의 오경(五經)이 모세의 저술로 믿는 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소위 ‘고등비평가(高等批評家)들은’ 그것들이 모세가 기록한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태도는 분명하게 그들의 연구와는 대조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세의 글이라고 하였다(막.7:8,9). 의심에 차있는 고등비평가들과 그 유사한 그룹은 구약성서의 대부분이 신화(神話)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나 바울은 스바의 여왕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었지(마.12:42), ‘스바의 여왕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의 태도는 주님의 태도와 동일하였다. 그 자신의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였던 베드로는 “보다 더 확실한 예언”(벧후.1:19-21)이라고 성서가 그의 경험을 능가함을 강조하였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을 다른 “성서”(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성서라”고 믿었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구약성서만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었다.

복음서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서신서들과 계시록에 많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행.13:51과 마.10:14 비교). 그것은 그들 모두가 동일한 영의 감동을 받았았을 뿐 아니라, 신약성서 저자들의 그 복음 기록들도 영감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가리키는 것이다. 딤후.5:18에서 바울은 신.25:4과 눅.10:7의 두 구절의 성구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성서”(구약서)라고 하였다. 바울은 그의 메시지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뜻을 박아놓았다(갈.1:11-12; 고전.2:13; 11:23; 15:3).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말들이(갈.5:17) 야고보서에서 “성서로” 인용되었듯이(약.4:5), 그것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1:2).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11

우리에게 그 이상의 계시가 필요없는 것이다. 성서는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없는 다른 영감된 글(예를 들자면, 야셀의 책, 나단, 엘리야,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글, 그리고 요한의 셋째 서신이 암시하고 있는바,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교회에게 써보냈던 보존되지 아니한 편지 등등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하여 이 글들이 보존돼 있지 아니하였을까? 분명히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있는 것만 보존해 놓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서가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서로 다른 서신을 영감을 받아 서술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사도들의 말이나 편지들이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적적 영의 은사가 있었다(고전.14:37; 요일.4:1; 계.2: 2) . 이것은 그 영감된 편지들이 즉시 용인된 것을 의미한다. 만일 성서가 인간의 독단적인 선택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책은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2.3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면서 여러번 그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성령”을 보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백지수표’와 같이, 무한정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었다. 성령은 항상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목적을 성취했을 때는, 성령의 은사는 철수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그의 장기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단기간의 고통을 받도록 허용한다(학습 6.1을 보라). 그러므로 성령은 세상에서 만드시 사람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보다 높은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에 대한 통속적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등, 육체의 은전(恩典)을 받는 까닭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성령이 질병을 치유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간다와 같은 내전이 심한 나라들에서 치유하는 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인간이 궁핍했던 시대에 일어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그런 것이다. 만일 그 누가 현재의 인간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바라고 있다면, 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12 하나님의 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은사의 목적도 그 의의도 뚜렷이 모르면서, 기적적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목적,특정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주셨다.그러므로,참으로 그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있을 리가 없었다.이것은 오늘날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실패와 부분적 치유와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실례는 모두 영의 은사를 주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영의 은사를 소유한 적이 없고,또는 그 은사의 소유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말하는 까닭은,그것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또 사용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오직 확정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셨던 것이므로,그 사용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사.40:3과 비교하라).

-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그들은 제단과 기타 여러가지 성물들을 보전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었다.하나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했던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상세한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을 주었다.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겉옷을 만들기 위하여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했었다”(출.28:3).
- 그 중의 한 사람 부살렐은,“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보석을 깎아 물리며,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는” 특별한 지혜가(출.31:3-5) 있었다.
- 모세에게 보냈던 그 영- 능력을 그에게서 취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었다.그것은 그들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여 그들의 원한을 없이하므로 모세의 짐을 덜기 위하여 그리하였던 것이다(민.11:14-17).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적절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 그 영의 은사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옮겨갔었다(신.34:9).
-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첫째 왕,사울이 다스리기까지는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렸다.이 기간 동안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을 당하곤 하였었다.사사기에는 그들의 침략자들로 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여 역사한 기록이 있다.웃니엘(삿.3:10),기드온(삿.6:34),입다(삿.11:29) 등등이다.

하나님의 영 13

- 또 하나의 사사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고(삿.14:5,6), 3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삿.14:19), 그를 묶은 쇠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삿.15:14) 영을 받았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은 삼손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것은 특별한 것을 성취해야 했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고 그 성취 후에는 철수했었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 영은 어떤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였다. 그 메시지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접 말하게 했던 영의 은사는 철수하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 자신의 말로 돌아갔다. 실례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스가랴에게 임하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너희가 어찌하여 야웨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대하.24:20).

또 다른 그런 실례들이 성서 여러 곳에 기록돼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대하.15:1-2; 눅.4:18-19을 보라).

이것을 볼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래 조항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 구원의 보장
- 개인 생활을 위하여 주는 어떤 것
-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
- 개인의 어떤 열광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모호한 논쟁(論爭)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복음 전도회에서는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대중 앞에서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느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영의 은사를 받았었다(삿.14:5-6); 그가 포효하는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가 받았던 그 영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전혀 의심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기준은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것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며,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느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 하나님의 영

그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교와 관련한 하나의 극적인 감정의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그들이 U-턴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의 괴이한 감정이었던 것으로 남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양자 택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성령 은사에 관한 성구(聖句)에 붙잡혀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틀림없다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해주는 성직자들이 있어, '바로 그것이라고' '할렐루야' 소리치며 장단을 맞추어 그들을 고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다고 설복하려고 할 때에 그 경험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서투른 모방의 근원(根源)은 그 사람이 개종(改宗) 전에 가져야했던 성서 지식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의 사기성(詐欺性)에 대항하기 위하여(렘. 17:9), 성서 원칙의 굳건한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 터득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1세기의 신자들이 소유했던 바로 그 은사를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세기에 은사들을 주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의 은사에 대하여 이미 배운 그 기초적 원칙을 기억하면서, 초기 에클레시아가(예수시대 후의 세대에 살았던 신자들) 소유하였던 그 영의 은사에 관한 신약성서 기록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은 온 세상에 널리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막. 16:15-16).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여 전파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신약성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저자 골목들과 회당의 강단에 서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는 색다른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목수에 지나지 아니한 예수가 구약성서 예언 기록의 정확한 성취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침례를 받고 그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 때에 한 집단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한 복음 메시지는 북부 이스라엘 어부 일행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으로, 그 전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영 15

의 역사와 교리를 기록한 신약성서로서 호소한다. 그러나 신약성서가 씌어지기 전인 그 당시는 그 전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은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이유였다. 기록된 신약성서 없이는 역시 새 신자의 그룹을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없으며, 그들 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실제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는 어떤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해서 그들의 메시지와 예수의 가르침이 씌어진 그 신약성서의 기록이 반포되기까지,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져 초기 신자들을 인도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이유들은 너무나 분명하다:-

-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였도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전도 사역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니라”(엡. 4:8-12).

- 바울은 로마서에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롬. 1:11).

복음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그 은사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게 된다:-

-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살전. 1:5; 고전. 1:5-6과 비교).

-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그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다”(롬. 15:18-19)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 복음 전파에 관하여,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타냄으로서”(히. 2:4)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 구부로 섬에 있었던 복음 전파 캠페인에는 기적으로 뒷받침을 받았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니라”(행. 13:12).

이처럼 그 기적들은 그가 가르친 교리를 그들이 존중하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16 하나님의 영

또한 이고니온에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행.14:3) 하셨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사도들이 순종하므로 일어났던 것을 요약한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20).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것들

그러므로 그 영의 은사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 기적적 은사의 소유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역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를 가리키고 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였었다”(행.2:4).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착수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방언, 즉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었다. 당국자들이 그들의 복음 전파를 단속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행.4:8),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이 감옥에서 놓여났을 때에, 그들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성서를 주의 깊이 읽는 자는 “그들이 이미 영에 충만돼 있었다”고 말하지 아니한 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수행하도록 영에 충만했었지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성취하려면 그것의 재충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울은 그의 침례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돼 있었지만”, 몇년 후 어떤 악한 사람을 소경이 되도록 저주하기 위해 다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던 것을 말하고 있다(행.9:17; 13:9).

기적의 은사를 논함에 있어서, 바울은 초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엡.4:7) 그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분량이란” 헬라어는 한정되어 있는 것,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수만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다(요.3:34).

우리는 1세기에 신자들이 소유하였었다고 기록된 그 영의 은사들을 정의(定義)하려고 한다.

1세기 영의 은사들

예언

“예언”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 그것은 때때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기도 하였다(벧후.1:10-21). 그때에 “선지자들”, -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내려갔었다. 그 중에 아

가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영감으로 예언하였다.그 흉년은 가이사 클라우디오(Caesar Claudius)의 때에 일어났다.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할 수 있는대로,재난을 당한 형제들에게 구호 양식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행.11:27-29).예언한지 수년 내에 일어나는 이런 류의 특별한 예언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는 들어볼 수가 없다. 초기 1세기 에클레시아의 신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있었다.그들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오늘날 소위 ‘영으로 충만 되었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실례를 찾아볼 수가 전혀 없다.

질병 치유

사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그들의 메시지가,“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는 것”(사.35:5-6)과 같은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기적의 행사로 말미암아 확인돼야 했던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상태에 대하여는 학습 5를 읽어보라.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됐다면,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며,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것이 절대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그 나라에 관한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 확인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형태였던 것이다.이런 까닭에 초기 신자들에게 수행되었던 기적적 치유의 여러가지는 일반 대중 앞에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베드로가 걷게 한 은사 치유의 전형적 표본을 읽게된다.그것이 성서에 언급돼 있다(행.3:2).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데려다가 두었다.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익숙했었다. 베드로가 은사로 그를 치유하며,“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하나님을 찬미하니,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더라.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곳에 모이더라”(행.3:7-11)고 기록돼 있다.

그 때에 베드로는 즉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공중 앞에서 말하며 복음전파에 들어갔었다.그들 앞에 나타난 치유함을 받은 앓은뱅이가 의심할 수 없고,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므로,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그 기도 시간에”(행.3:1) 성전 문 앞은 오늘날 바겐 세일하는 날 백화점 모양으로,사람들로 붐볐을 것이다.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전파를 분명한 기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택하셨던 장소는 그런 곳이었다.그와 마찬가지로,우리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였다”(행.5:12)고 하신 이야기를 읽게된다. 소위 ‘오순절 교회’의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거리에서 보다

18 하나님의 영

는 뒷골목 교회당에서, 냉혹한 일반 대중앞에서 보다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돼있는 ‘신자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저자는 지금 영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소유를 입증하고 있는 자들과 여러번 토론을 해보았다. 내가 본 바로는 그들이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완쾌하지 아니하고, 잘해야 부분적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었다. 그 교회의 교인조차도 그 치유했다는 질병이 계속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때때로 나의 절친한 오순절 교회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한다. ‘나는 당신이 그 은사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가진 자와 그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항상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능력을 가진 사실을 내게 보여달라고 한다. - 만일 당신이 그것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것이 성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당신의 교리적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능력을 내게 분명하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저자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1세기 그 정통적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 영의 은사를 가졌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일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요. 11:47), 그리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행. 4:16).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방언 말함을 들은 사람들이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겼다고 하였다(행. 2:6). 오늘날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것이 그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교회 사람들에게서는 사도시대의 것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기적들을 행사한다는 현대 오순절주의자들의 정체를 자세하게 밝혀, 그들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루살렘 전역에 화제로 히트한 기적을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나 또는 나이로비의 나하루 공원에서 있는 오직 하나의 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소유하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신유(神癒)의 은사로 치유했다고 선전하는 질병의 종류는 대체로 다음 같은 것들이다:-

- 위의 종기, 기도회 후에 치유 과정이 진행했다고 믿는 것.
- 불구였던 사지가 바로 되었다는 것.
-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다는 것.
- 맥이 없던 것이 기운이 생겼다는 것.

어떤 구급차 운전수가 환자를 데리고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T.L. Osborn씨 전도 집회소에 갔던 이야기를 들어 말하겠다. 그 운전수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여, 거기 남아있기로 결정하였는데, 결국은 그 환자가 치유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영 19

그와 같은 집회에는 “와서 기적을 기대하라”고 공공연하게 내붙인 많은 포스터를 보게된다.그 강단은 심리적 효과를 감안하여 설치해놓고 있다.신약성서 어디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장치를 해서 대중의 심리적 효과를 노린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1세기에 그 치유를 받았던 자들 중 어떤 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요.5:13; 9:36).

그러나 오늘날 신유 주장자들에게서는 심리적 충격을 노리는 반복된 기도,복소리 장단과 소란한 음악 효과로 세뇌되어 일어나는 것이다.거기에는 틀림 없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성적 판단이 서있지 아니하다.본 저자가 여러 곳에 있었던 그런 집회에 참석하였던 기억이 언제나 생생하다.그 때마다 복소리 장단과 손뼉 치는 소리의 요란한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아니하려고 이성적 침착성으로,성서를 의식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머리가 깨지는 것같은 두통을 경험하곤 하였다. 오순절교회 주의자들의 사전 준비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군중의 감정과 심리적 작용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되었다.그런 것과와는 대조적으로,베드로는 그 기적의 은사를 사용하여 거리에 누워있던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다(행.5:15).바울이 그 기적의 은사를 사용한 것은 믿지 아니하던 그 총독에 의해 개인적으로(행.13:12-13),또한 루스드라 도성에 살고 있는 많은 이교도들에 의해 입증되었다(행.14:8-13).바로 그 영의 은사의 목적이 요구했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그리고 군중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전시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으로 여길 뿐,다른 어떤 설명으로도 과소평가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치유(治癒)의 기적들의 모두가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막.2:12).“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눅.7:16).

방언(方言)

세련되지 않은 어부였던 사도들 대부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었다(막.16:15-16).아마도 그들은 “내가 다른나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고 이유를 달았을 것이다.그들은,“나는 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이 형편 없었는데” 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이는 그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기를,“그들은 모두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다”고 하였다(행.4:13).바울과 같이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았던 전도자도 그 언어적 장애는 어쩔 수 없었다.개종자들이 생겨났을 때에,그들 상호간의 교훈을 교환해야 할 사람들

20 하나님의 영

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말(방언)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은사가 있었다. 신약성서 관주에는 그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라”고 돼있다. 어떤 일에 열광하여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그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과 그리스도인은 “방언”에 대한 이 견해에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혼동은 그 “방언”은 “다른나라 말”이라는 성서의 정의를 제시하므로서 분명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아니한,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나라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 아라비아인이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나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니라”(행.2:1-12)고 기록돼 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주술처럼 지껄이는 것을 듣고 놀래고 기이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 말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이다. 그 지껄이는 괴상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래고 설득되었던 것이 아니라, 행.2장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나라 말로 말한 것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놀래고 설득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지껄었다면,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비웃으며 그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방언이” “언어라”는 분명한 정의 외에도(행.2:4-11), 신약성서 다른 구절들에도 “방언”이 언어를 의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한 구절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서 계시록에는 다섯번 사용되었다(계.7:9; 10:11; 11:9; 13:7; 17:15).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서(70인 역본)에는 “방언”이라는 헬라어의 그 단어는 언어를 의미하고 있다(창.10:5; 신.28:49; 단.1:4을 보라).

고린도 전서 14장에는 방언의 은사 사용에 관한 명령의 리스트가 있다. 이 은사가 유대인들에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에 관하여 그 21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하였다(사.28:11).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방언”과 “입술”이라는 것은 “방언”이 다른나라 말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라고 언급하는 고전.14장의 것이 다른데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 장은 초기의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은사의 남용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특성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준 바울의 영감적 비평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 37절이 열쇠가 되는 구절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나 내

하나님의 영 21

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

누구든지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은사 사용에 관한 수행 명령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명령들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14:11-17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영의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주술처럼 알지 못하는 소리로 지껄이는 것은 제재되어야 한다.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지껄이는 “기도에”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는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 즉 ‘전적으로 동의(同意)한다’는 의미이다. 형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덕도 되지 못한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전도 집회 장소 밖에서 사람들이 성서를 기초로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전도지를 돌리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 어떤 흥분한 부인이 내가 전하는 이 교리는 “마귀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주술적인 방언으로 약 10분간 지껄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였다.

22 하나님의 영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 곳을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방언(外國語)의 은사가 필요하였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알 수 있는 말로 다섯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말 만마디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내게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한 시간 떠드는 것보다 한마디 한국어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방언 사용은 주로 복음 전파로 타국에 갔을 때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대부분이’ 신자들 사이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도 사용하는 것을 본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타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례를 볼 수 없다. 1990년 초에 동유럽에 그리스도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소위 복음 교회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영어로 된 전도지를 돌렸다. 그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방언의 은사로 전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영의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대중 전도자 Reinhardt Seiber라는 자는 아직도 캄팔라, 우간다 등지에서 통역자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정확히 일어났던 일이다. 한번은 모슬렘교와 이교들이 한결같이 서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의 기괴한 행동을 조롱한 적이 있다. 그리하여 분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단이 그 오순절 집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라”.

이것은 예배하는 동안 두세 사람만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중에게 세가지 이상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두가지 이상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면, 그 말하는 자의 각 구절이 두가지 이상으로 번역되어 그 말 전체의 통일성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영국 사람들이 모인 런던 한 복판의 집회에, 만일 그 방언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참석한 프랑스나 독일 관광객을 위하여 그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전도자: 안녕하세요.

방언 말하는 자: 안녕하세요(프랑스 말로).

두번째 방언 말 하는 자: 안녕하세요(독일 말로).

그러나 그들은 자연히 “관례에 따라서”, 잇달아서 말해야 한다. 그들이 동시에 말하면 혼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소위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들은 감정적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이 말하므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 함께 떠들어대는 것을 보았다.

방언의 은사는 때때로 예언의 은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메시지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해졌기 때문이다. 그 두가지 은사의 사용의 실례는 사도행전에서 발견된다(행.19:6).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관광객들이 참석한 런던 집회에서 그 강사가 프랑스어로 말한다면 그곳에 참석한 영국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 모두가 그 말한 것을 이해하게 했을 것이다. 즉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통역하므로. 마찬가지로 만일 프랑스어로 말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 강사는 비록 프랑스어로 말할 수는 있었지만, 청중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역의 은사는 이해를 도우려고 나타났던 것이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의 은사는 잠잠했어야 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전.14:28). 현대의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자들이’ 통역도 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32,33절:-

24 하나님의 영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만나니,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의식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경험이 아니다. 그 소유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관할에 복종하게 돼있었다. 귀신이든가 ‘악한 마귀에’ 붙잡혔다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할 것이라고 종종 그릇되게 주장되고 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영의 능력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전.14:32). 그것은 인간성의 악한 힘과 대조되는 선한 힘이 아니다. 그 밖에 그들에게 그 성령의 힘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때에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미 말하였다.

화평을 사랑하고 혼란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 소유자들에게 한 호소는(33절), 오늘날 그 ‘오순절교회 주의자들에게’는 쇠 귀에 경읽기가 되고 있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하라”.

영의 은사 사용에 대하여 다른 이 문맥에서, 여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은사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방언은 전체로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뜻모를 말을 지껄이는 그 현상은 그 청중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는 감정의 흥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여인들, 어린이들은 그런 흥분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런 소리를 지르기 일쑤이다. 그들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특출한 여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의 분명한 명령과는 도무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울이 여인을 증오하는 자라는 엉뚱하고, 당치도 않는 논쟁은 나중 몇절에서 취소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고전.14:37).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은 성서의 영감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또는 영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선언할 것이며, 영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주의 명령인 것을 부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 논쟁

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에,그런 사람이 교회의 회원으로 계속 남아있어 그들과 교제를 계속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학습의 주해(註解)로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소위 방언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파가 다른 교파사람들 보다는 우울증이 비교적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미국에 Vanderbilt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Keith Meador씨는 특별히 우울증과 기독교 배경 관계를 테에마로하여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있다.“심각한 우울증에 있어서”, 일반 기독교인 그룹은 1.7% 에 비하여 오순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5.4 % 라는 아주 높은 비율인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이 결과는 1992년 도 12월,“병원과 사회 심리라’는 시사지에 게재돼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1993년 2월 11일 호에도 게재되었다.그 제목 그 자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바,그것은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최고로 우울증이 나타났다”고 입증한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럴까? 오순절주의자들과 기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바,영을 소유하였다는 경험은 오직 고통스러운 심리적 신용 사기(信用 詐欺 - Confidence game)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2.4 그 은사의 철수

하나님의 영의 기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현재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신자들이 다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오는 세대의 능력이라”(히.6:4,5)고 불리어졌고,욥.2:26-29에는 이스라엘의 회개 후에 다시 한번 그 영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묘사해 놓았다.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이 은사를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거이다. 성서에 기록된 사실과 같이 사건이 일어나,어떤 그리스도인이 눈이 떠졌다고 한다면,그것은 주의 재림이 확실히 곧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부록 3을 보라).

성령을 소유했던 1세기와 그 재림 때까지 사이의 한 시기는 은사들이 철수된다는 분명한 성서적 예언이 있다:-

“예언도 폐하고,방언도 그치고,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13:8-10). 즉 그 은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있던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1세기에 신자들이 소유했던 그 영의 은사들은 “그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 철

26 하나님의 영

수하였고, 그리고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시 주실 것이다. 그 “온전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엄격히 말하면, ‘충만 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죄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온전한 것은 예언의 은사의 결과로서 갖게 되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부분적 지식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언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사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 성서가 완성되어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1세기 보통 신자는 신약성서의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러가지 실제 문제에 대하여 신자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말하는 얼마간의 예언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의 일생의 윤곽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바울의 서신도 한 두통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완전히 기록되고 그것이 교회에 순환되었을 때에는, 그 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예언의 그 은사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성서는 그 영의 은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던 모든 것을 대치(代置)하게 되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서를 알았나니, 성서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신자들을 온전케 하고, 또는 완전하게 하는 것은, “성서의 말씀” 이다. 그러므로 한번 “성서가” 영감을 받아 기록되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므로”, 그 기적의 은사들이 철수한 것이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성령 은사의 목적과 그 기능을 잘 엮어놓은 대목이 있다(엡.4:8-14):-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하였도다...이는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교훈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사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세기의 은사는 신자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또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었던 것, 즉 “성서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딤후.3:16,17). 또한 그 ‘온전케 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데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다(골.1:28). 한번 성서의 진리를 터득한다면, 다양한 교회에서 제

하나님의 영 27

시하는 많은 교리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일한 성서, “진리의 말씀을”(요.17:17) 연구하여 터득하므로 우리는 엡.4:13에 말하고 있는 그 한 믿음으로 “믿음의 화합(일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믿음을 소유하는데 이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었던 것이다.

에베소서 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엡.4:14), 그 기적의 은사들의 사역 아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언에 관한 것을 말한 그 문맥에서 그 기적의 은사들이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고전.13:11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바로 터득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기본 지식의 완성으로 기뻐하며,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것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을 소유하였다는 주장

결론으로 지금도 그 기적의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복된 주장에 관하여 또 다른 여러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현재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여 지껄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랄랄, 랄랄, 랄랄, 샤마, 샤마, 예수, 예수”, 등등.. 이것은 구문논적(構文論的) 어법에 의한 언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는 것은 분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방언을 말한다는 자들은 그런 특징이 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1세기에 있었던 그 방언은 그 목적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 또 어떤 오순절과 사람은 그 방언을 받은 것은 “구원 받은” 표시라고 주장하며 참으로 개종한 자 모두에게 그것이 뒤따른다고 한다. 이 주장은 교회가 사람의 몸과 같다고 비유하여 그 은사들의 기능을 말씀하신 바울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전.12:17,27-30).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28 하나님의 영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위와 같은 관점을 그 12장 첫머리에서 지적하고 있다:-

“어떤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영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12:8-12).

이와 같이 역설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서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오순절과와의 또 다른 논쟁점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것에 있다. 즉 그들은 복음을 이해한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었다. 그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방문하였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행.8:14-17). 그 성령을 전수(傳受)한 것은 안수함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어떤 오순절파는 그 방언 말하는 것이 구원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그 은사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 간에도 이같이 중요한 교리가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카리스마적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카톨릭의 카리스마주의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성모 마리아와 교황을 경배하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오순절 카리스마파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탄핵하고, 그리고 카톨릭 교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보혜사(保惠師)를 소유할 것을 이같이 말씀하였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시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6:13,23; 14:26).

하나님의 영 29

그 보혜사를 소유하였다는 자들 간에 기본 교리의 분열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 소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 주장자들의 일부는 그들의 신앙을 성서로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이 보혜사로 말미암은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그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성서의 기록과 어울리지 않게 은사들 중에서 그 방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엡.4:11에 영의 은사들의 도표에는 그것의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전.12:28-30에 있는 일람표의 맨 끝에 있는 것이다. 그 은사가 사용된 것은 신약성서에 세번 뿐이다(행.2:4; 10:46; 19:6).

그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사한다는 현대 카리스마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관해 이 학습에서 제시한 중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성령을 소유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이 그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논쟁에서도, 우리가 이미 제시한 바에 대하여, 성서의 논리로 대답할 수 있는 중대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부분적 치유와 그 방언(뜻도 없는 소리로 지껄이는 것)이 일어나는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들의 뇌의 능력의 적은 일부, 적게는 1 %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마음이 심리적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심리는 불에 데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힌두교도들은 맨발로 불위를 걸어간다. 그렇게 흥분했을 때에는, 보통 때보다 우리의 뇌 능력을 보다 많은 퍼센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심리적 효과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 몸이 보통의 경험 이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 손이 잘려나갔지만 수시간 동안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광적인 신앙과 흥분시키는 어떤 선동적 음악, 카리스마적 인도자의 영향력, 이런 것으로 정상적 인간 경험의 영역 밖의 것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적들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바, 과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경험으로서 예외인 것들이다. 이처럼 Voo-doo교(미국 남부 및 서인도 제도 흑인 사이에 있는 토인의 원시종교) 신자들도 그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경험하며,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모슬렘교 또한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기적들을 입증하고 있다. 전체로 1세기에 그 영의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분명히 다른 종교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현재 그리스도교의 기적들이 다른 종교의 것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1세기의 성령 은사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30 하나님의 영

이 분야에 아주 많은 연구가 있는 William Campbell 씨는 ‘Pentecostalism’ 논문을 그리스도교의 교회지에 제공한 바가 있다(그리스도 교회지 1967년 발행). 그는 많은 이교가 이같은 ‘방언을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Kawaii 에서는 Oro신(神)의 제사장이 자기의 뜻을 계시한다고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한 것을 다른 제사장들이 통역하고 있다. 그것은 그 오순절과 그리스도인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만일 지금 널리 보급돼 있는 소위 그리스도교가 1세기에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기적들을 실제로 시행하며 그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슬람교의 계속된 승리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 성령의 은사들의 “보혜사들” 소유한 자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요.14:12,16)고 하였다. 성도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변명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혜사의 기적적 은사들을 소유했는지 또는 아니 했는지 간에, 만일 그들이 그것들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해야 할 것이다”(요.14:12). 물론 그들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다.

2.5 성서의 권위

본 학습에서 연구하여 얻은 바,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며, 그리고 또한 그 생각과 목적이 시행되어 실제로 성취하게 하는 활력(活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영이 성서 전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혼동에 깊이 빠져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 성서의 지식 결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한권의 책에 귀속된 것을 믿지 못하고, 성서의 일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의 계시가 성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주실 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렘.17:9),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진리(요.17:17)를 도저히 마음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성에 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형태의 계시를 받으려고 유혹되는 것이다. 그 중에 유별나게 널리 퍼져있는 몇가지 실례를 들어 참고해 보기로 한다:-

종 교	성서외의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	인간성에 부합하는 매력적 제안들을 받아들인다
여호와증인 종교	그들은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 과수대를 영감된 말씀으로 취급한다.	성서의 바른 해석을 생각해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로 마 카톨릭교	교황과 추기경의 의견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신조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 각사람의 성서 읽기와 해설을 전혀 허용치 아니한다.
물론교	성서외에 물론경을 가지고 있다.	성서를 믿는 사람은 소망없이 죽었고, 물론경이 구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카리스마적 기독교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인도하므로 성서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성령의 뜻이라고 한다.

이 도표에 기입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로서 그것들이 사실인가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하나의 성서를 가지고 왜 많은 종류의 교회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각기 어느 정도 성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다가 다른 형태의 계시를 첨가하여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 그의 계획과 목적, 그의 생각을, 인간적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육신에 만족하도록 꾸며놓았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과연 하나의 참된 교회를 찾으려 한다면, 그 교회는 “몸이 하나이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浸禮)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4:4-6)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교회를 수립하신 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 야웨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는 “성서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을 찾으라고”.

변론 4:성령은 인격체인가?

학습 2 .1과 학습 2 .2 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그의 능력이고, 여러 모양으로 그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를 내놓았다. 하나님의 영의 행동의 방법은 그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소와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인격체를 갖춘 분이며 또한 하나님이라고 논쟁을 벌인다. 이

32 하나님의 영

전 학습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이며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인격체의 마음이나 능력이 또 다른 인격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는 그 생산된 힘을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 하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사람의 성격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의 특성의 일부로서 내포돼 있는 것으로, 또한 그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

영의 존재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은 그릇된 견해임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것을 삼위일체의 교리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으로 세분 모두가 동일한 그 세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성령은 인격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모순된 논리이다. 또한 그것은 성령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본래 그리스도교에 수입된 이교 사상이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는 믿음만한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그 낱말은 성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그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영이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역시 하나님이라는 불가사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의 생각이 비논리적인 것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신비(mystery)하시다는 말로 토론을 회피하고, 우리는 그런 논리적 설명은 필요없고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work)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秘密-Mystery)를 신약성서에서 언급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롬.11: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永世)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라”(롬.16:25,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고전.15:51).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엡.1:9; 3:3).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것이었다”(엡.6:19; 골.4:3).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골. 1:26,27).

이것이 신약서의 나오는 비밀이라는 모든 단어로써 이 이상 기본교리에 어떤 신비라는 말이 첨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비밀이라는 말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비밀”- 신비라고, 계시록에 묘사된 거짓 종교의 그 제도(계.17:5), “바벨론에” 대한 성서적 명칭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제도의 그 신앙을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그 여인의 비밀(계.17:7)을 이해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모호한 논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경험과 같은 주관적 근거에 두던가, 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어떤 외부의 영력(靈力)의 확실치 않은 애매한 것에 두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 능력과 추리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성서에 기록된 바로는, 어떤 복음 전도자도 결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비밀, 또는 아주 신비한 것으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서에서 이성과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호소했던 것을 듣게 된다.

이 학습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바,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은, 그가 “성서를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논증하였다”(행.17:2,3)고 되어있다. 그것은 조직적이며, 논리적 성서 해설로, 그 서문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논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그가 사용한 전도 방법이었던 것이다(행.18:19을 보라). 그가 고린도에서 크게 전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 방법으로 하여, “안식일마다 회당 (유대인)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권유)하였다...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였다”(행.18:4-6)고 하였다. 성서를 근거로 한 바울의 논리적 설득으로 개종자들이 계속 생겨났다. 거기서, 예수에 관한 환상이나, 어떤 기묘한 감정도 없이, 다만 성서로 주를 만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 영감된 기록은 “그들이 반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논리와 이성으로 호소하게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였다”(행.13:43).

34 하나님의 영

그들은 다음 장소 이고니온으로 가서, “회당(유대인)에 들어가 말하되, ...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행.14:1)고 되어있다.

바울이 나중에 심문대(審問臺)에 섰을 때에, 그의 확실한 장래 소망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영광스런 논리로 계속하였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행.24:25), 그의 예리하고 정연한 논설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우리의 개종은 이와 같은 논리 과정에 근거해 있어야 함으로, 우리는 소망과 교리에 관하여 논리적 성서 해설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3:15).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하여 침착한 소리로 말하는 것은 복음의 소망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 ‘개인의 간증을’ 계속 늘어놓는 것은 그 ‘소망에’ 대한 타당한 대답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말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생활에 해주신 것을 전하려고’ 한다. 그와 같은 개인의 일화를 말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고후.4:5) 전파한다. ‘예수와 개인적 관계를’ 가진 것을 전하기보다는 모두가 주님과 관계를 갖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를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우리의 개종 방법은 그들의 남은 생에서 하나님과 보다 넓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 모범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의 모본이 된 자들은 항상 경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성을” 사용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다(행.6:2). 신약성서 서신들 또한 그 독자들은 성서적 논리 사용을 받아들였던 자들이다. 이처럼 “이성으로”, 모세의 법 아래 있던 대제사장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히.5:3).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것에 부응(副應)하여 우리 자신을 전부 드려야 하는 바, “우리의 타당한 봉사를” 드릴 것을 재촉하였다(롬.12:1). 헬라어 ‘Logikos’라는 말은 ‘Logos’에서 파생(派生)된 말로,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도(道) 또는 말씀을 언급한 그 “말씀으로” 번역돼 있다. 그러므로 성서의 조건들에 논리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신 인격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며,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성서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자체가 비논리적 주장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만일 우리가 성서에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

하나님의 영 35

지 못한다면, 모든 성서 연구는 허사이며, 성서 공부가 필요 없고, 그것은 달콤하고 또한 매력적인 문학 작품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책장에 성서가 그렇게 꽂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을 한 인격체로 믿는 자들은 성서적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그 인용된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에 관해 의인화(擬人化)하여 말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요.14장에서 16장까지에 있는 “보혜사”, 또는 영이 “탄식한다”고 한 말씀 등등이다.

우리는 학습 4.3에서 사람의 “영이” 화낼 수 있는 것(행.17:16)과, 괴로워 하거나(창.41:8), 또는 즐거워 하는 것(눅.10:21)을 확증하였다. 그의 영, 즉 그의 요소, 그의 마음과 목적, 그것들은 그의 행동들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별개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는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인용하여 말한 것(잠.9:1) 등등, 추상적인 것에 대하여 말할 때에 때때로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하여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있는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같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실체는 존재하는 존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의인법의 방식으로 하나의 인격자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는 변론: 5의 “의인법(擬人法)의 원칙에서” 더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변론 5: 의인법(擬人法)의 원칙

성서에서는 마귀(魔鬼)라는 낱말이 자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낱말을 혼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성서에서 마귀에 관한 의인법 사용의 설명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의인화하여 인용하고 있는 지혜, 부, 죄, 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같이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擬人化)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서 문장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 마귀의 경우는 여러가지 환상적 이야기에 맞춰져 있다. 다음에 그 실례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혜의 의인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옴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3:13-15).

36 하나님의 영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잠.3:18).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어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잠.9:1-2).

이 구절들과, 그 장들의 남은 구절들에는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누구도 지혜가 세상에 쏘다니는 문자 그대로 한 여인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터득해야 할 성서 기술(記述)의 특징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富)의 의인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부(富)가 주인(主人)과 같이 의인화하였다. 많은 사람이 부하려고 애쓰는고로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너무나 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다. 누구도 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의 의인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8:34).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느니라”(롬.5:21).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롬.6:16-18).

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가 주인이 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구절들을 바르게 읽지 못하여 바울이 죄를 사람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영의 의인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

하나님의 영 37

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것은 행.2:3-4에 기록된 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고 했으며 각사람에게 그 능력의 임함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기사들을 행할 수 있었다. 그 성령은 물론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힘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죽음의 의인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계.6:8).

이스라엘 나라를 의인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यो, 네가 다시 소고로 너를 단장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
며 나을 것이며”(렘.31:4).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
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
님 야웨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
겠나이다”(렘.31:18).

이 구절들의 문맥은 그 선지자가 한 처녀 또는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에게 말하
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들을 의인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엡.4:13).

“몸이 하나이니(엡.4:4).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고전.12:27).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
고 같이, 그가 친히 그 몸의 구주시니라”(엡.5:23). “그는 몸인 교
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38 하나님의 영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18-24).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후.11:2).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계.19:7).

이 구절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 것 곧 “교회이다”. 그 “교회는” 이미 오래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 없어진 현재의 통속적 교회들과 혼동치 말아야 한다.

참된 신자들, 즉 성서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을 간직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순결을 지적하면서, “정조 있는 처녀라”고 말한 것이다. 마치 육체적 몸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하여 “한 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참된 교회는 많은 책임과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인용할 때에 누구도 그것을 한 개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는 만일 사람들이 과거의 거짓 교회로부터 유래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당하게 번역되어 마귀나 또는 사단이라고 한 것들도 하나의 무서운 괴물로 또는 타락한 천사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변론 6 : 칼뱅주의(Calvinism)

불과 수백년전, 요한 칼뱅은(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A.D.1509-64) 우리의 생애가 예정돼 있다는 사상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적 결정이 우리 구원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든가 받지 못하던가 이미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이 여러가지 현대 사상으로 표지를 바꾸어 나타났다.

- 만일 우리가 구원 받기로 돼있고 어차피 구원 얻게 돼있다면, 성서나 그리스도교 연구에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생활에서 죄를 짓게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 이 그릇된 사상에 관해서는 학습 6에서 논의하겠다.
-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것이 예정돼있으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보살핌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여행에서 모든 것이 예정돼있으니,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시간이 되면, 그 비행기는 떠나게 된다.
-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서를 믿든

가 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인간의 철학을 배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성서적 논거가 많이 있다:-

-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개념 전체를 의미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한 그렇게 하므로서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들어왔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킨다면, 그런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히.5:9) 고 하셨다.

- 히브리인서 11장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궁극적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면, 고난 받을 때에 구원을 얻으려고 드린 많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생각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 침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막.16:16; 요.3:3-5). 이것을 칼뱅주의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추상적 예정론에 의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이다(딤후.1:10).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와 연합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침례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롬.6:15-17에는 침례를 받으므로 죄에 순종하는 생활에서 의를 순종하는 생활로, 주인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나니”(롬.6:16). 이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예정이 아닌 자유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드림은 마음으로부터 복음의 교리들을 순종하는 것이다(롬.6:17).

-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예정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전도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는 전도할 것을 명령하였고 또한 그 실례가 기록돼 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도다”(행.13:26).

-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계.22:12).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어찌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고 하였다(행.13:46). 그들은 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막지 아니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인 되게 하는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롬.5:12)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사

40 하나님의 영

람들이 죄인이 되도록 강요하셨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 그 스스로 범죄하고 그 형벌로(롬.6:23), 죽게 된 것이다.

- 고린도 전서 10장과 기타 여러 구절에는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자들이 떨어져나가, 신자들에게 경고의 본이된 것을 실례로 들고 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갈.5:4)는 사실은 칼뱅주의 구원론 같이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만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딤후.4:16).

-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24:15).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강요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필적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그 영감된 말씀을 “영이라”(요.6:63)고 했을 만큼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역사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복음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말씀에 부응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계.22:17)고 하였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사람의 소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2:21).

변론 7: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오순절에 많은 군중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그 문맥상 군중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등등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던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의 은사들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는 기적의 은사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요엘의 예언 성취를 알렸다(행.2:16-20). 그러므로 그것은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 군중에게 기적적 영의 은사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군중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다(행.2:5). 그 은사들을 주시겠다는 요엘의 예언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였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행.2:39), 그 영을 그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한 요엘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었다(행.2:17과 욥.2: 28-32 비교). 그 기적의 은사들의 약속은 오직 그 두 세대, - 베드로에게 듣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만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 41

우리는 1세기 말 (베드로가 말한 후 A.D.70년 경에) 그 은사들이 철수한 것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또한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그 두 세대 동안 그 영의 은사들은 이방인들도 받을 것이었다.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2:39). 그 이방인들을 “먼데 사람이라”고 엡.2:14-17에 기록된 것을 주목하라.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것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의 부분적 성취인 것이다. 그 대부분의 남은 것들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그 공격 부대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에(욥.2:20),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했을 때에(욥.2:28)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욥.2:28).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행.2장에 묘사된 바, 그 오순절에서 보았던 그 적은 부분의 성취 외에는 그 예언의 어떤 다른 것도 성취된 것이 없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 영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오늘날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영은 하나이지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12:4-7; 엡.4:4). 그것은 1세기에 기적의 은사들로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철수하고, “그 영의 은사의 약속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났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 의하여’ 주신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감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죄와 구원의 은사인 것이다. “말씀을” 사용한 많은 다른 실례가 있다. “하나님의 지식”(골.1:10)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요일.4:9; 3:17; 고후.5:14)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또는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된 은사인 것과 같이, 성령이 가능하게 하고 성령이 말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 영의 은사: 속죄

로마인서 5:16과 6:23에는 구원을 “그 은사라”고 묘사되었다. 사도행전 2:38의 영의 은사와 비교하기를 바란다. 사도행전 2:39은 요엘서 2:32을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영의 은사이면서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데 사람에게” 약속된 은사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사.57:19을 비유한 것이다: “먼데 있는 자에게 (속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평이 있을지어다”. 엡.2:9에는 또한 구원의 은사로서 묘사돼 있으며,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2:18)고 말하였다. 이것은 엡.2:13-17의 사실이 사.57:19의 비유로서 확인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또 오사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라”. 사.30:1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은사보다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죄사함을 찾고 있었으므로 저주하였다. 그들은 “덮개(속죄)로 덮으려고 하나, 나의 영

42 하나님의 영

으로 하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사.44:3에는 “내가 갈한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며(영적 메마름- 사.53:2),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같은 말로 이스라엘이 말세에 속죄될 것을 묘사하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속죄 받는 것이다(행.3:25,26). -그것을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영의 부어주심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욥.2장과 행.2장, 그리고 갈.3:4의 말들을 분명히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사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온 것으로 그것에는 우리가 영의 약속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고전.6:11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에는 영의 은사(“은혜”)와 속죄로 인도하는 속죄가 관련된 것을 가리키면서, “은혜...속죄...영을 받는 것이”(롬.1:5; 5:11; 8:15) 같은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의 용어와 같은 개념 위에 수립되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며,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견해와 그들의 서신들로 인한 영향에서 그런 것이다. 모세의 오경(五經)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 땅(the land)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통상적인 구절이다.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서의 그 땅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예기되는바, 그 관련된 속죄인 것이다.

갈라디아서 3:2,5를 그 3:8-11과 비교해 보면, 영을 받는 것은 구원과 속죄에 관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 영의 약속”(갈.3:14)은 그 문맥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영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것은 개인 기도가 내포된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 영의 은사는 기도의 응답을 묘사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영의 은사를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마.7:11과 눅.11:13). 빌립보서에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도” 그와 같은 것이며(빌.1:19), 요한 일서에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 결과로 영을 받았다고 말하며(요일.3:24), 그 22에서는 그 계명들에 순종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 유사한 표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처럼 우리의 확신은 기도의 응답(요일.5:14)과 또한 영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요일.3:21,24; 4:13).

그 “은혜란 말로” 자주 번역된 헬라어 ‘은사(charis)라는’ 말이 영의 은사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15:11). 그러나 그 “은혜란 말은” 자주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실레, 출.33:12; 34:9; 민.32:5; 시.84:11; 고후.12:9; 히.4:16; 약.4:6). 스가리아서 12:10에는 끝날에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제시한바, 그 간구가 속죄하는 영의 은사를 초래할 것을 시사하며,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영의 주심은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개에서 실증되었고 또한 끝날에 그것이 있을 것을 요약하고 있다. 그것과 같이 바울은 회개와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11:29)고 말하였다.

보혜사(保惠師-Paracletos)

요한 복음 14장과 16장에 보혜사(保惠師-Paracletos)에 관한 약속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기적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 우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약속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은사들은 제자들에게 “내(예수)가 너희(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요.14:26) 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생각나게 한다”는 그말 자체가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의 기적적 요소에 한계를 짓고 있다.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와 함께 살았었다. 그들은 그 보혜사의 도움으로 예수의 말씀들을 상기할 수가 있었다. 약속한 그 “보혜사는” 또한 완성된 성서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여러 약속은 그 1세기에 기적적으로 완성되어 나타난 하나의 구성 형태라고 결론 짓는다. 지금 우리는 그 구성 형태인 성서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과거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고전.13:9-13)과 비교해 보면, 오직 부분적 계시였다. 신약성서의 완성으로 은사가 철수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다른 계시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물론경과 기타 어떤 유사한 저작품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성된 현 신약성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성서의 완전성은 그 성령 은사의 철수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성을 터득하려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각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은 사도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요일.4:1-4).

변론 8: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16:17).

이 구절은 그 은사들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신자들에게만 그 기적적 은사들을 받는다고 논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8)고 하신 그

44 하나님의 영

계속된 말씀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론상 신자가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들은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들이었다. 이 위대한 기적들을 분명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이 구절의 그 약속들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하나도 상처 아니하였던 것, “바울이 한뭇의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아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公義)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알고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며 말하되, 신(神)이라 하더라”고 한것을 기억할 것이다(행. 28:3-7). 그 결과는 그의 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였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모르지만 지난 100년 동안 그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리스마적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서, 이런 능력이 수행된 실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신자마다 그와 같은 위대한 표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 약속은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에 관한 성서 가르침을 취합해본 결과에서 얻은 결론으로 그 은사는 이미 우리를 떠나간지 오래된 것이다. 이 기적적 은사들은 1세기에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소유했던 것이지만, 신약성서가 완성되고 난 후에는 그 은사 소유가 끝나고 만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곡해, 또는 무지로 말미암아 가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된다.

마가 복음서 16장의 그 마지막 구절의 그 기적(奇蹟)들은 복음의 말씀을 확증할 특별한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져” 나타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方言-다른 나라 말들)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이적(異蹟)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17-20). 우리가 지금 신약성서로서 가지고 있는바, 말로 하신 말씀이 한번 완전히 기록된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랐던 그 기적의 표적이 필요없게 된것을 알게 되었다. 히브리서에는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적들과 기사(奇事)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나뉜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고 하셨다(히. 2:4).

학습 2: 학습 문제와 해답

1. 다음 것들에서 어느 것이 “영”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 a) 힘
 - b) 거룩하다
 - c) 호흡
 - d) 흠
2. 성령이란 무엇인가?
 - a) 하나의 인격체
 - b) 능력
 - c) 하나님의 능력
 - d) 삼위일체의 한 분
3. 성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 a)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 b)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 c) 사람들이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 d) 그 일부는 영의 감동으로, 그 다른 부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4. 다음 것들 중에서 영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어떤 것인가?
 - a) 말로서 전한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b) 초기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 c)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 d) 사도들의 어려움을 구원하기 위하여
5. 무엇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 a) 일부는 성서에서, 또한 우리 생각에서
 - b) 성서를 떠나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므로
 - c) 성서만으로
 - d) 성직자들에게서
6. 1세기에 영의 은사를 가졌던 자들의 이름을 대라

7. 그 은사들은 언제 철회했는가? 지금도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가?

8. 오늘날 성령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